

“유쾌한 대본에 끌려...자동차와 단둘이 연기”



최대 시속 50km, 1987년식 자동차 스텔라와 함께하는 유쾌한 '질주'가 시작된다.

내달 6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텔라'는 차량 대부업계의 에이전트 한 남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장의 슈퍼카를 가지고 도망간 친구를 쫓는 추격 코미디로, 영화 '극한직업'·'완벽한 타인'의 각색을 맡았던 배세영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주연 영배 역할을 맡은 배우 손호준은 17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저는 대본이 재밌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 같다"면서 "스텔라'도 대본이 너무 재밌었다. 감독님이 저를

다음달 6일 개봉 영화 '스텔라' 손호준 '최대 시속 50km' 스텔라의 추격 코미디 권수경 감독 "가족적 메시지 담았어요"

선택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찍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서 자동차 스텔라와 함께한 장면이 가장 많았다는 그는 "말이 없는 자동차와 둘이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게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스텔라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잘 찍을 수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흔한 옵션 하나 없지만, 많은 사연을 가진 '자율주행차' 스텔라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연출을 맡은 권수경 감독은 "스텔라는 현대 국민차였기에 많은 분이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면서 "작품이 가진 이야기와 차가 가진 노스텔지어(향수)의 연관성 때문에 이 차를 주인공으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온 지가 40년 가까이 된, 오래전에 단종된 차라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전곡을 수배해서 간신히 두 대를 확보해 촬영했다"고 스텔라에 얹힌 뒷얘기를 전했다.

빛에 쫓겨 절친한 친구 영배(손호준 분)를 배신한 동식 역을 맡은 이규형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에서 도끼 역할을 맡고 있다"며 "너가 하얏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백치미가 있는 인물"이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손호준에 대해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함께 보낼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면서 "호흡이 잘 맞는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주역 중 한 명인 허성태는 이번 작품에서도 악역을 맡았다.

그는 "서 사장은 영배와 동식 두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며 괴롭히는 역할"이라면서 "단편적인 악역이 아니라는 점에 끌려 작품을 택했다"고 말했다.

많은 액션 장면을 소화했다는 허성태는 군산항 인근에서 촬영한 부다가 장면이 언급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서 사장 패거리가 멋지게 나왔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영화가 100만 관객을 넘는다면 무대 인사를 하면서 서 사장 패거리들과 함께 '코카인 댄스'를 선보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영화 '형' (2016) 이후 5년 만에 새 작품을 선보이는 권 감독은 "'스텔라'는 제 전작인 '맨발의 기쁨'이나 '형'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가치인 가족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잘 지켜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벚꽃 엔딩' 잇는 대표 봄노래 방탄소년단 '봄날'

멜론 조사, 5년간 3~5월 월간 톱100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과 하이포 '봄 사랑 벚꽃 말고'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봄노래는 그룹방탄소년단의 '봄날'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최근 5년간 봄철 3~5월 차트를 분석한 결과 '봄날'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5월 월간 톱 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멜론은 "'봄날'은 2017년 2월 발표 이후 5년 넘게 톱 100 자리를 지키고 있는 K팝 대표 스테디셀러"라며 "봄철에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소폭 하락하는 패턴을 매년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견 봄노래의 대명사인 '벚꽃엔딩'은 2020년 4월에 60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봄에는 톱 100 진입을 하지 못했다. '봄 사랑 벚꽃 말고'는 지난해에는 벚꽃이 절정인 4월에만 톱 100에 들었다.

해의 가수 가운데에서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라우브가 2018년 발표한 '패리스 인 더 레인' (Paris In the Rain)이 2019~2021년 3년 연속으로 3~5월 톱 100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멜론은 다음 달 5일까지 각자에게 어울리는 봄노래를 추천해주는 '봄날은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방탄소년단 '봄날' 앨범 사진

손예진부터 김태리까지... '워맨스'로 물든 안방극장

'서른, 아홉' '사내맞선' 등 인기 여성들 우정·연대로 차별화 시도

'브로맨스'의 시대는 저물고 '워맨스'의 시대가 왔다. 최근 안방극장에서는 여성 인물 간의 관계성이 돋보이는 드라마들이 지속해서 등장해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현재 방영 중인 JTBC 수목드라마 '서른, 아홉'이 있다. 마흔을 앞에 둔 동갑내기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서른, 아홉'은 차미조(손예진 분), 정찬영(전미도), 장주희(김지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다.

20여 년간 함께 해 온 세 친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연인보다 더 끈끈한 사이를 자랑한다.

취재감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찬영의 남은 생을 함께하려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극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보육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미조와 소원(안소희)의 느슨한 연대도 또 하나의 '워맨스'로 그려지고 있다.

tvN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와 SBS TV '사내맞선'에서도 여성 인물 간의 우정이 돋보인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는 펜싱 국가대표인 나희도(김태리)와 고유림(보나)이 친구이자 라이벌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사내맞선'에서는 절친한 친구인 신하리(김세정)와 진영서(설



드라마 '서른, 아홉'

인아)의 유쾌한 호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중영한 작품 중에서는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MBC TV '웃소매 붉은 굿동', SBS TV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이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를 내세우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멜로드라마들이 로맨스만으로 부족한 지점들이 많아 여성들의 우정이나 연대를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여성들의 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역할이 커지는 부분을 드라마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에 그려진 남성들의 연대와 다른 섬세함, 여성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소재적 차별화를 준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은하 복귀설 "사실 무근"

허위 보도에 법적대응 검토

배우 심은하(사진)가 복귀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심은하 측은 16일 한 매체가 심은하가 은퇴 21년 만에 복귀한다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며 "허위 보도에는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심은하가 종합 콘텐츠 기업인 B사의 신작에 출연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중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심은하는 "B사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무분별한 추정 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심은하는 1993년 MBC탤런트 공채 22기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1990년대 톱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이듬해 은퇴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